

	보도자료	2026. 4. 27.(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업무담당자	강창훈	☎ 760-727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종자 신청량으로 월동채소 생산량 미리 예측한다

- 종자수요 데이터와 농가 재배동향 결합...생산량 예측 정밀화 -
- 사전 예측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관리 패러다임 전환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월동채소의 수급 불안 줄이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‘종자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월동채소 생산예측 조사’ 를 5월까지 실시한다.
- 이번 조사는 농산물 수급조절 방식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. 농가의 재배 계획과 종자 수요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.
- 특히, 주요 월동채소의 종자 신청량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면, 도내 파종 가능 물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재배 규모를 미리 추산할 수 있다.
- 종자 수요량은 농가 재배로 이어지는 가장 초기 단계의 지표로, 향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.
- 최근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. 2024~2025년산 월동채소 가격 호조에 힘입어 2025~2026년산 재배면적이 늘었지만, 이후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. 올해 농가의 재배 의향이 반영된 종자 신청량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수급 안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.

- 조사 대상은 제주 주요 월동채소 5개 품목(월동무, 당근, 양배추, 브로콜리, 양파)이다. 도내 재배농가 약 500호와 종자·유통업체 31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방문을 병행한다.
-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작목별 재배면적 증감, 파종·정식 시기, 종자 구매 계획, 품종 선택 등 실제 재배 의향과 함께 기후변화 및 최근 재배 동향이 농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.
- 종자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2026년산 종자 사전 신청량과 확보 물량, 최근 5년간 종자유통량 등을 조사한다. 종자 신청량은 실 재배면적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선행지표로 활용되며, 생산 예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조사 결과는 6월 중 정책부서와 관계기관에 공유되며, 9~10월에는 실제 종자 유통량을 추가로 조사해 예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.
-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농업도 이제는 지난해 가격이나 경험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지고 있다”며 “최근 가격변동 사례에서 보듯 사전 예측과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- 이어 “종자수요라는 농업현장의 선행지표를 분석해 농가가 생산을 사전에 조절하고,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